

국내복귀기업 전일니트

3산단 패션단지 동지틀고 본격 가동

익산시,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 적극 협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편직물 생산업체 전일니트(대표 김성국)가 3산단 패션단지에 동지틀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지난 14일 제1산단에 현재 3산단 패션단지 공장 이전 개업한 전일니트는 부지 8,306㎡, 연면적 2,450.6㎡의 규모로 현재 고용인원 9명, 투자액은 15억원이다.

김성국 대표는 1963년 (주)쌍방울 입

사 후 2004년 중국 연태로 진출했으며 2013년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신흥동)에 사업장을 입차하여 국내로 복귀했다.

이후 사업장 협소로 인근 타지역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던 중 2017년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3산단을 분안받아 2018년 공장신축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이르게 됐다.

김성국 대표는 "익산시의 관심과 지

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국내로 정착을 한 만큼 꼭 성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로 이어진 전일니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내복귀기업 등 패션기업이 익산에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

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니트는 30여 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언더웨어, 세미아웃, 각종 스관단 및 기능성 원단 등 편직물 생산업체로 국내에는 쌍방울, 전방군제, 이랜드 등과 해외에는 신화트루니, 제이앤씨글로벌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견실한 업체이다.

/익산=장왕원 기자

고군산도 명품관광지 육성 위해 행정력 집중

군산시, 교통대책·관광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군산시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명품 관광지로서 육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현장을 방문해 고군산연결도로 전면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및 관광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동신 시장은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사업 선유도 내부관광로 조성, 교통통제 및 관광형 시내버스 운행 주차장 조성계획 등의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해

안경관 및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방안 등도 꼼꼼히 챙겼다.

시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대비 T/F팀을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및 콘텐트 개발과 관광 편의시설 구축,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으며,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계획으로 고군산 관광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동신 시장은 "고군산군도가 천혜의 도사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명품 관광지로서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며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고군산군도가 국내에서 가장 사랑 받는 해양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월 고군산연결도로 완공에 따른 교통·관광대책, 환경 및 여건장비 등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고군산을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로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대-군산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세미나

군산대학교와 군산경찰서는 두 기관이 최근 미투 캠페인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2일 군산대학교 제2학생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및 계장 생활안전 및 성폭력 업무 관계자가 참석했고, 군산대학교에서는 학생취업지원처장 및 부처장, 학생지원과장 업무관련자,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학생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학내 및 주변상가 몰래카메라 점검, 캠퍼스폴리스 순찰교육 및 합동순찰 학내의 주요 행사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세미나 후에는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의 캠퍼스폴리스 순찰 및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군산대학교는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 대응, 대학 주변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군산대학교 캠퍼스폴리스를 운영하고 있다.

7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폴리스는 교내 순찰봉사와 교내 치안 및 귀가 도우미 봉사대로 나뉘

평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순찰을 돌며 캠퍼스방범, 대학 인접지역 치안보조 활동, 캠퍼스 면학분위기 및 환경 지혜 행위자 계도, 여학생 귀가 도우미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가장 느리게 달린 선수가 대상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성료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구현을 위해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느리게 달린 선수가 대상을 받는 제15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가 13일 러블리투어를 시작으로 14일 장애인 문화엑스포와 마라톤까지 양일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8천명)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직위는 "매년 참가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도 전국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로 8,000여 명 이상 참가하는 만큼 대회 참가자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본대회가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대회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출발, 남성충동창회관 신공단주유소, 2공단 중앙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6.5km 단일코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응원하고 이끌어 주며 달리는 훈훈한 장면이 곳곳에 연출됐다.

또한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인 문화엑스포는 장애인 문화 다양성 확산과 장애인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비장애인과의 문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타악기 연주,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치러졌다.

한편 올해도 한국가스공사 전북본부 및 동우화인켄은 나누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후원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민·관·군 1천명이 자원하여 종합안내소, 급수봉사, 미아보호, 환경미화, 경기보조, 주차안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회 성공개최의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매년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참가비를 대신하여 참가자들이 에게 한 음품의 쌀을 모으는 사랑의 쉼도리 단지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모인 쌀을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시-대형마트, 전국체전 홍보 업무협약

2018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주최최자인 익산시는 지난 13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와 관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익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익산시와 관내 대형마트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

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3개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마트 내 리플릿 비치 및 배너 설치,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근대문화체험교육

군산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먹거리를 체험하는 '2018 공무원 근대문화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산이 보유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지구와 수려한 고군산군도의 탐방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은 해마다 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근대문화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강의를 시작으로 근대문화지구를 탐방하고 선유도를 방문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의 공무원에게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껏 뽐내어 교육생들이 다시 또 군산을 방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군산 방문을 권유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